

# 주민등록 주소지서만 가능...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 투표 이렇게 합시다

광주 364곳·전남 863곳

1차 3장→2차 4장 투표

'V'자 표시 등 인증사진 가능

밤 10시쯤 당선 윤곽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교육감 투표를 13일 광주 364개, 전남 863개 등 122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위해 모두 8표를 행사해야 한다.

◇광주·전남 1227개 투표소 일제히 투표=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지역은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59명을 선출한다. 전남지역은 광역단체장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2명, 기초의원 211명을 뽑는다. 또 광주서구갑,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광주지역 총 유권자는 117만2429명, 전남은 157만7224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는

27만7252명, 전남은 50만468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은 광주 82%, 전남 78.8%였으며 20대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은 각각 61.6%와 63.7%의 투표율을 보였다. 앞서 2014년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광주 57.1%, 전남 65.6%였다.

◇신분증 챙기고 지정된 투표소 찾아야=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 용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투표를 1, 2차에 나눠 하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므로 조금만 주의하면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다. 다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된 2명

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 간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

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무효다.

◇투표 인증 인터넷에 올릴 수도=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하나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여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일에 선거운동 금지=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역단체장 민주당 "14곳 승리"...한국당 "6 + α 선전"

### 여야 선거 목표치 제시

### 바른미래·평화당 "소기 성과"

여야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자체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을 근거로 기대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암살'을, 자유한국당은 '선전'을 각각 자신했으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했다.

우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줄곧 '9 + α(알파)' 정도로 보수적 목표를 제시했으나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평화 바람이 불면서 최대 15곳까지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애초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구·경북에서는 초반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226곳 중 100곳 이상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12곳 중 경북 김천,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등을 뺀 9곳에서 각각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전국 평균 50% 안팎의 득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 기준을 '6 + α'로 잡았다. 한국당은 대구·경북·울산·경남을 '우세' 지역으로, 부산과 경기, 충남을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경기지사 선거

에선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각종 악재로 여론조사상 열세를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과 영남권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해 대선 당시 득표율(22.72%)보다 높은 지지를 얻어 의미있는 성적을 내리라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전망이다. 특히 정당득표율에서는 한국당을 앞설 것으로 기대했다.

호남 유세에 집중해온 민주평화당은 전남·전북에서 8개 안팎의 기초단체장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정의당도 수도권과 호남권 정당투표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투표소 설치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1동 제4투표소인 벽산 블루밍3단지 탁구장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